



무탄소(CF) 연합 출범, 국제적 규범 논의 선도한다

-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 기구인 ‘무탄소(CF) 연합’ 공식 출범
- 국제사회와 함께 무탄소에너지 규범 마련 착수

무탄소(CF) 연합이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한다. 무탄소(CF) 연합은 윤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27.(금) 10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회원사 대표 및 국제 연구기관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무탄소(CF) 연합(Carbon Free Alliance)」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무탄소(CF) 연합은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계기 각종 국제세미나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 Clean Energy Buyer Alliance)처럼 무탄소에너지의 중요성과 폭넓은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단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협력해 인증기준, 가입요건, 구체적인 목표 등을 포괄하는 ‘(가칭)CFE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국제 공동작업반 구성·운영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주요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동참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회성 무탄소(CF) 연합 회장은 출범기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에너지원의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라며,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CF 연합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경제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탄소(CF) 연합은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제언”이라며, “무탄소(CF) 연합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CF 연합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강희경 (044-203-4248)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044-203-5122)



□ **출범식 개요**

- (목적) 「CF연합」 법인화 완료 및 공식 출범 계기 대내·외 홍보
- (일시/장소) '23. 10. 27.(금) 10:00 / 대한상의 EC룸 및 로비
- (참석)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CF연합 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CF연합 회원기업* 임원(사장급), 국책연구기관장 등
 -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고려아연, LS일렉트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GS에너지 등
- (주요행사) 법인설립 허가증 수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 **행사일정(안)**

시간		세부내용	비고
10:00 ~ 10:03	3'	출범기념사	CF연합 회장
10:03 ~ 10:06	3'	축사	국무총리
10:06 ~ 10:09	3'	법인설립 허가증 수여 (산업부 장관 → CF연합 회장)	산업부 장관
10:09 ~ 10:16	7'	CF연합 출범 제막식	
10:16 ~ 10:20	4'	기념촬영 및 폐회	

붙임 2

「CF연합」 출범식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직책	성함
정부	국무총리	한덕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CF연합	CF연합 회장	이회성
	GS에너지 사장	허용수
	포스코 사장	이시우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정연인
	LS일렉트릭 사장	김종우
	한국전력 사장	김동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황주호
	삼성전자 부사장	김수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윤옥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동욱
	고려아연 부사장	김기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우태희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박병춘
	LG화학 전무	이종구
	한화솔루션 전무	신호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세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안성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한상미
	한화임팩트 전무	송용식
	한전원자력연료 본부장	정창진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장	주 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님,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님,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님, 무탄소연합의 회원사 대표님, 그리고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님, 오늘 이렇게 무탄소연합 (CF연합) 출범의 뜻깊은 시간에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전 지구적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이제는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지구온난화 저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CF연합의 목표입니다.

CF연합은 회원사의 증지를 모아 무탄소에너지 확산 촉진의 융합적 기후 산업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확산 모델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글로벌 온난화 저지와 성장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계 국가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동참을 유도할 것입니다.

CF연합은 각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Carbon Free 경제에 기여하는 모든 무탄소에너지와 관련 기술, 이노베이션을 포용합니다.

이것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의 기본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은 화석에너지자원이 없는데도 바로 그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지난 세기 절대빈곤에서 오늘의 한국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탄소배출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화석에너지 기반의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탄소산업 선도 국가가 21세기 세계 경제의 선두 주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의 최대 난관은 산업부문 배출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중화학 산업의 배출입니다. 어떤 국가든 이 난관을 돌파하는 선도국이 등장할 것이고, 그게 바로 한국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도체 및 중화학 강국을 향한 도전은 한국에게는 기회입니다.

지난 세기 경제발전의 능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21세기형 무탄소 한국산업과 경제를 디자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정부와 산업계의 협업이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이 결과 대규모 산업에너지 수요자는 열에너지와 청정전력의 안정공급이 절실하고, 특히, 무탄소 에너지 조달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정책지원과 기존 제도의 혁신적 개편이 요구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통한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의 비전과 이에 따른 CF연합 결성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국무총리님과 산업부 장관께서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산업과 에너지시스템의 무탄소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한국은 21세기 무탄소경제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며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상에 걸맞게 Carbon Free 시대의 무탄소에너지 인증체제 등 글로벌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CF연합이 출범하는 이유입니다.

Carbon Free Korea, Carbon Free World로의 여정에 이렇게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이제 무탄소연합, CF연합은 힘차게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